

치 사

수확을 나누니 마음까지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청량한 기운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성한 장경사가 남한산성 의승군 수륙무차대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2킬로미터에 달하는 남한산성을 쌓고 방어한 의승군과 벽암 각성 선사를 비롯한 선대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법식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무형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을 장경사와 경기도가 큰 원력으로 함께하니 의미 또한 배가되고 있습니다.

천작지성(天作之城)으로 꼽혔던 남한산성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침탈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드넓은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청나라의 12만 대군도 남한산성의 견고한 성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남한산성 곳곳은 장경사를 비롯한 산성 내 10개 사찰에 머물렀던 의승군의 주도로 축성하였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기의 축성기법이 모두 들어 있는 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성곽발달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면서도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선시대에는 5군영 가운데 하나인 수어청의 근거지이자, 광주 읍치를 관리하는 관아시설이 운영되던 조선 최대의 행정, 군사의 중심지였으며, 20여 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한산성의 가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전쟁으로 남한산성내 모든 사찰이 폐사되었으나 피해가 적어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 있는 장경사는 이 지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고 있으며, 남한산성을 축성한 의승군의 승영 사찰인 동시에 독특한

산성문화를 이루고 있기에 장경사와 남한산성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그간 남한산성은 물론 산성내 전통문화 복원을 위해 아낌 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장경사도 경기도의 지원에 힘입어 승영사찰의 면모로 일신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곳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리는 수륙무차대법회가 남한산성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선양함은 물론 남한산성내 불교문화의 원형을 찾아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불교문화가 세계화 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수한 문화의 가치발굴은 한국문화의 향기를 국내외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문화 사업에 커다란 일조를 하고 있으며 품격 있는 전통문화로도 크게 발전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1700년의 불교역사와 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량에서 전통 불교의식 수륙무차평등 의례로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신 주지 경우스님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복잡다단한 여건 속에서도 불교문화 복원과 원형 발굴을 공유하기 위해 신심과 원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5년 10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